

매체활용과 제2외국어 학습: 웹 기반 교육을 중심으로

안 용 주

(선문대학교 일어일본학과)

An, Yong Ju. (2001). Make use of media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focus with the web-based instruc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 109-121.

The fast growth of the area of Industrial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the drastic change in educational environments, especially for foreign language teaching. The most noticeable change is that the information which was usually under the control of instructors can now be directly conveyed to learners throughout multiple kinds of information channels. With this unstoppable trend, the instructors now strongly motivated to focus on various types of media application. Given these facts,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the web-based instruction (WBI) among others, since WBI is a well-known and easily accessible type of instruction. In this study, WBI is approached with two different aspects. One is a functional aspect. The other is a psychological aspect. The WBI enables learners to choose any information on any fields, and it makes learners choose their own learning level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learning ability. In this paper, the future of WBI is also discussed with three different angles: software, hardware, and educational diversity. In addition, this paper argues for the need to incorporate into foreign language teaching all advantages verified to be useful so far in both fields-traditional classroom teaching and WBI.

I. 들어가기

한국은 2001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¹⁾에 의해 세계 1위로 인정되었고, 현재 4가구당 1가구 꼴로 초고속 인터넷이 가설되어있다고 발표되었다. 닐슨·네티레이팅²⁾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달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19시간20분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2위인 홍콩(12시간12분), 3위 미국(10시간19분)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률과 광대역 통신 사용률 역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정보센터³⁾가 밝힌 조사에 따르면 2001년 9월 말 현재 국민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412만 명(이용률56%)으로 집계되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95%가 초고속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그 보급률이 아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글로벌 인터넷 조사 닐슨·네티레이팅스의 최근 자료에 보고됐다. 이는 홍콩의 53%, 싱가포르의 24%, 호주 5%, 뉴질랜드 4%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한국 IT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이 같은 통계들은 우리의 생활 환경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이 같은 인프라는 곧 교육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환경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이제까지는 교수자 한사람에 의해 통제되던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학습자에게 전달되고, 교수자는 더 이상 팔방미인의 박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었다. 이는 곧 교수

1) [HTTP://www.itu.int/home/index.html](http://www.itu.int/home/index.html)

1865년 유럽 20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의 유선전신에 관한 국제전신협약(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 협약의 개정을 위한 상설기구로 국제전신 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을 창설했다. 2000년12월 현재 ITU의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부문회원은 약 650개 이상으로 되어있다.

2) [HTTP://www.nielsen-netratings.com/](http://www.nielsen-netratings.com/)글로벌 인터넷 리서치 기관

3) [HTTP://www.nic.or.kr/index.html](http://www.nic.or.kr/index.html)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자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전통적 교육방식과 교육환경에 익숙한 교수자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사회적 인프라는 외국어 학습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II. 네트워크를 통한 웹기반 외국어 학습

외국어 학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엔진을 가동시켰다. 순식간에 97개의 카테고리 와 376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주었다. 이어서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을 검색어에 넣으니 각종 외국어 학습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가 즐비하게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수업(Distance Learning)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도 외국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한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이웃의 일본 검색엔진으로 이동해서 같은 검색어를 적으면 예외 없이 수많은 외국어 학습 사이트의 존재를 통보해준다.

원격수업은 오래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섬이 많아서 이동이 불편한 곳에서는 이 같은 원격수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기도 했으며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대학과 대학간의 학점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볼 때 역시 매체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은 의지는 있으나 현실 상황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학습하는 집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게 더없이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웹기반교육(WBI)을 통해, 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존재로부터, 제한된 지식을 전수 받던 이전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학습자의 학습 가능한 시간대에,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전수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웹기반교육은 현재 인터넷활용교육, WBI(Web Based Instruction),

E-Learning,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III. 교육환경의 변화

인터넷의 보급과 네트워크의 발달, 통신 환경의 발달과 하드웨어의 발달은 교육 현장의 변화에도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즉, 이제까지의 교실환경은 학습의 전달자인 교수자의 1인을 축으로 수동적인 학습자간의 교류로 이루어져 왔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엄연한 구별과 위상이 확립되어져 왔고, 이러한 교실환경은 학습자로 하여금 점점 수동적인 역할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 통신의 발달과 사회적 인프라의 형성은 비단 사회적인 흐름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도 매우 빠르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통신 속도의 발달로 가져온 교육환경의 변화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전달의 매개체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이제까지 모든 정보를 교수자 1인이 관리하고 공급함으로써 발생되었던 권위적이고 집합적이며 강제적인 수업 체제가, 정보 통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흐름이 교수자 1인에서 다채널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학습자들은 교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취득할 수 있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둘째, 교수자의 위상변화를 들 수 있다.

정보를 1인 독점함으로써 교수자가 가지고 있던 막강한 강제력은, 다채널에서의 정보 공유로 인해 상당부분 희석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수자의 발언권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교수자의 위상변화에서 교육의 마인드는, 더 이상 학생에게 강제하는 학습이 아니라 교수자는 단순한 정보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서 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정보 가이드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셋째, 교수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통적 교실학습에서는 1대 다수의 학습이라는 제한적 상황으로 인해 학습자에 대한 인디비쥬얼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통적 교육방법에서는 레벨이 상이한 학습자가 한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받게 되므로, 학습자의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없고 몰개성적인 학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의 열린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학습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학습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방식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의 열린교육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교수자의 역할 변화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인식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정보시대의 열린교육에서 학습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학습의 주체자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1인 독점시대에서는 학습의 주체가 비록 학습자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학습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학습자가 모든 학습과정과 지식활동을 주체적으로 향하고, 이에 대한 평가부분까지도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학습자로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의 스트라티지를 설계한다.

전통적 학습에서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의 진도와 문제 해결에 있기까지 교수자의 진도에 학습자가 맞추어야 하는 일방적인 흐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스스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학습과정을 창조한다.

학습이란 교수자와 학습자의 어느 일방적인 흐름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고, 환경과 개인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존 듀이), 상호작용과 자아성찰을 통해 새로운 학습능력을 재창조해야 한다.

IV. 웹 기반 교육의 한계성

웹 기반교육을 반대하거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흔히 지적하는 사항이 면대면 교육(Face To Face)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한편으로는 매우 타당한 지적으로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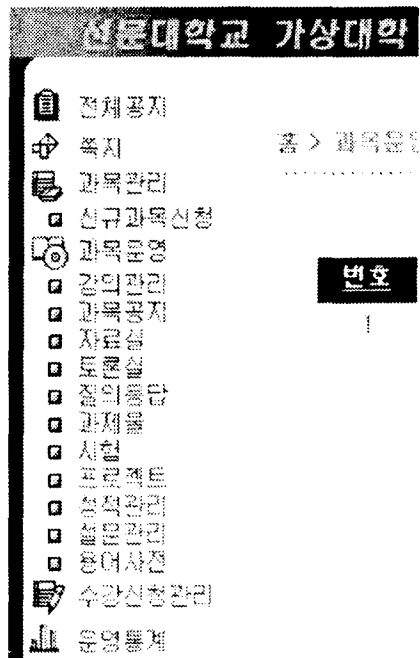
웹 기반교육은 크게 기능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교수자는 기존의 교수자만이 제공하던 지식을 다양한 전공자의 다양한 지식으로 대체할 수 있고, 사고와 정보의 확대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1회성에 그쳤던 학습이 제공되어지는 콘텐츠에 따라 무한 반복학습이 가능하게 되고, 다음 스텝으로의 학습 진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학습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진지한 전문적 학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된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집체교육에서 발생하는 개성의 다양성의 몰수와 수준별 학습, 학생 개개인의 인디비쥬얼한 접촉이 교수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는데, 웹 기반교육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능력, 개별성에 있어 철저하게 차별적인 접촉이 가능하다.

또한 제2외국어 학습자의 추세가 나날이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제2외국어 학습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체활용 즉, 웹 기반교육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는 나름대로의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일본의 컴퓨터 업체가 만들어낸 복합어인데 이제까지의 멀티미디어라는 개념은 어프라인(off line) 즉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이 강했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이 복합되고 통신 개념이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이 아닌, 웹 상에서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환경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적 인프라는 이러한 웹기반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의 멀티미디어적 활용은 단순한 공지사항이나 지식 전달의 매개체에서 벗어나 Face To Face기능까지도 제공할 수 있게되어 전통적 수업방식의 장점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표1> 웹 기반교육의 장단점

웹 기반교육의 약점	웹 기반교육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인격적 만남 결여 ● 컴퓨터에 대한 사전 예비교육 필요 (개인차) ● 고비용 저효율 ● 다양한 학습활동(실험, 실습, 견학 등)의 제한 ●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빈약 ● 모니터 학습에 대한 저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의 효율성 ●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 기능 ● 동기·비동기적 상호작용과 반응 ● 학습자료의 광역화 ● 정보제공의 전문화 ● 학습자 중심 교육 ● 평가의 객관화와 다양화 ● 간접적 컴퓨터 리터러시능력 향상

V. 웹기반 교육의 방법론

제2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언어 학습 전반에 걸쳐 컴퓨터 기반의 ICT 활용은 나름대로의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크게 컴퓨터 모듈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교수자 입장에서의 CBI, 학습자 입장에서의 CBI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컴퓨터는 이제까지의 외국어학습에 사용되었던 어떤 매체보다 광범위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고, 웹을 이용함으로써 리얼타임으로의 학습자와의 인터랙티브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리얼타임으

로의 리스폰스도 가능한 것으로 보다 인디비주얼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계라는 특성상 판단과 결과에 있어 주관적인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들 수 있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제까지의 텍스트 기반에서 다차원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해지고, 학습자와의 반응결과는 그래도 데이터베이스화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다만 교수자의 로드는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도 하다.

학습자에 있어서는 이미 비주얼기기에 익숙해 있어 기성세대와는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익숙해질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웹기반에서의 학습자 개개인과 인터랙티비티는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웹기반 교육의 이 같은 많은 장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리얼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인격적 만남이 어렵다는 것이다.

학습을 위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화된 학습도구를 일반적으로 코스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어프라인에서의 코스웨어(일명 학습용CD-ROM)에서는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습자의 요구사항에 여러 가지로 반응하도록 설계하고 있지만 실제로 리얼타임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웹기반에서의 코스웨어에서는 현재 활용되는 각종 기술적 지원에 의해 이러한 점을 상당수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웹기반교육에서의 코스웨어 설계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종래의 단방향성에서 쌍방향 성으로 이동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인터랙티브성을 중시하는 설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제한공간에서 면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와 거의 같은 수준의 리얼타임에서의 리스폰스가 가능하고, 인터랙션한 반응을 즉각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동기,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채팅, 메일, 게시판 등).

이 같은 인터랙티브한 웹기반 설계에서 주로 이용되는 기술은 CGI, ASP, PHP 등의 기법이주로 사용된다. 여기에 웹기반교육에서는 전통적인 폐쇄학습에서는 학습자에게 지원하기 어려운 각종 자료제시나 가상현

실(Virtual Reality)을 통해 학습자 자신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on line)의 이점은 교수자 1인의 지식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각종 전문가에게 학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VI. 웹기반 교육의 평가

웹기반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지적되는 것이 평가(evaluation)이다. 이제까지의 전통적 교육방법에서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에 의해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객관화할 수 있는가가 평가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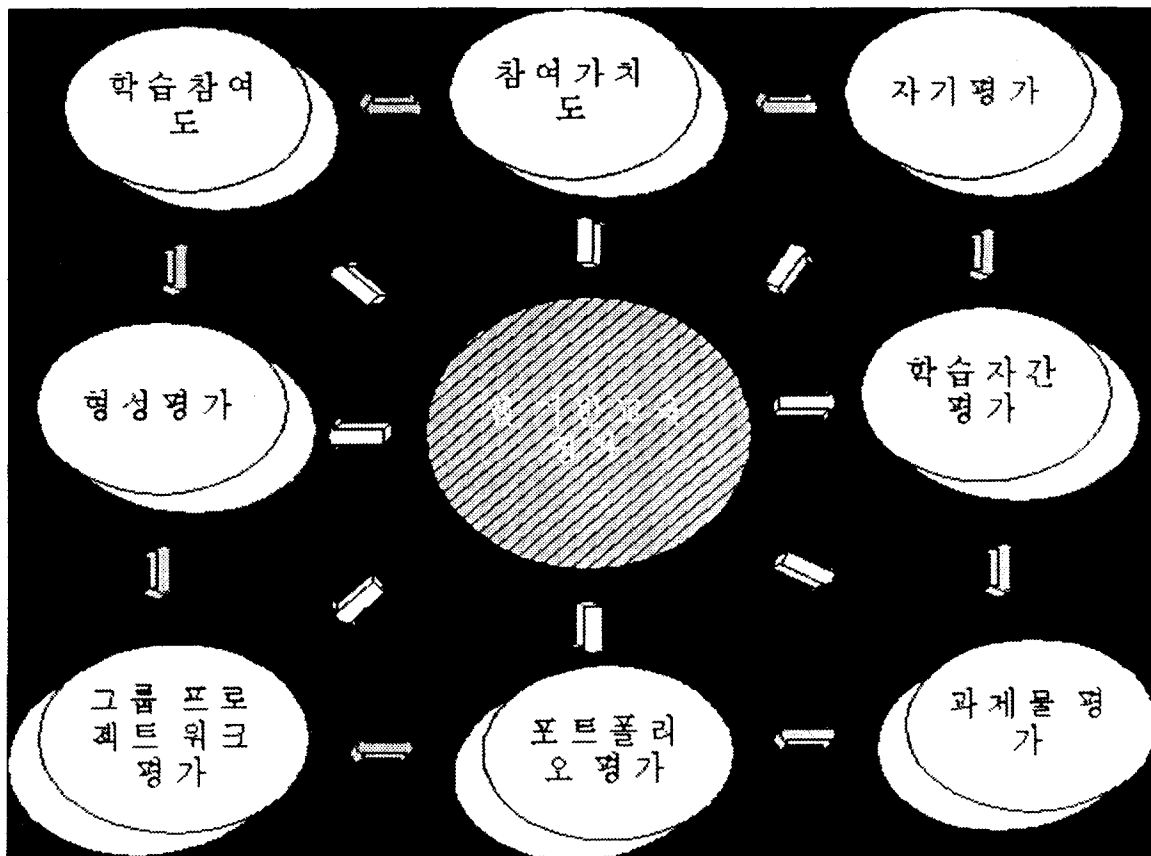
웹기반교육에서는 평가에서의 신뢰도를 얼마만큼 객관화하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측정이 가능할 것인가. 집체교육의 경우 한곳에 모아놓고 감독자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선 객관화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웹기반교육에서는 이 같은 객관적인 신뢰성은 매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웹기반 교육에서는 수시로 치르는 퀴즈나 수시 고사와 정해진 기간에 치르는 평가, 총합평가를 통해 학습자를 평가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신뢰도에 있어 그다지 높지 못하다. 이를 위해 웹기반교육으로의 원격수업에서는 이제까지의 시험에 의한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토론실을 통한 학습자간의 주제 토론, 교수자의 주제 선정에 대한 주제별 토론, 학습자에 대한 프로젝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삽입시키는 포트폴리오(portfolio) 타입의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전반에 걸친 활동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행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웹 상에서는 이 같은 평가에 있어 집체형 교육체제의 평가에 비해 보다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즉, 설정된 학습목표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평가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습 참여도(①학습자의 학습 사이트에 대한 접속빈도, 접속 시간에 의한 기록②교수와의 질의 응답에 대한 참여 횟수③학습 토론실의 참여 여부), 참여 가치도(①교수자에 대한 질의 내용의 중요도②토론한 내용의 논리성, 분석력, 창의성을 판단), 자기평가(자신의 학습 참여도나 참여의 질적 학습 태도, 토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셀프 평가-공개원칙), 학습자간의 평가(학습자 개인에 대한 동료 학습자들의 토론 내용에 대한 평가와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동료 학습자들의 평가), 과제물 평가(①주어진 과제에 대한 보고서 평가-공개원칙②학습자의 개별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복합평가), 포트폴리오 평가(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발달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그룹 프로젝트 워크 평가(소속 학습자의 그룹별 프로젝트를 평가), 형성평가(온라인 또는 어프라인에서의 테스트)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평가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

<표2> 웹 기반교육의 평가



전체공지
 공지
 과목관리
 신규과목신청
 과목운영
 강의관리
 과목공지
 자료접속
 특목수업신청
 강의명수정
 과제출력
 시험
 프로젝트
 수강신청관리
 학과관리

전체공지통보

강의	시험	리포트	토론	프로젝트	임의평가
50	20	10	10	10	
가중치(%)					
차수별가중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학과 ID 이름					

< 1 >

VII. 웹 기반교육의 전망

앞에서 매체활용 특히 웹기반 외국어 학습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웹 기반교육은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의 다양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전망할 수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무선통신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본격적인 원격수업(Distance Learning)체제의 구축이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OCU, KCU를 비롯한 각종 사이버 대학이 학점부여는 물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체제에 돌입해 있고, 자체적인 학생선발까지 오프 캠퍼스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드웨어측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용 코스웨어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제까지 영어가 중심으로 움직이던 코스웨어 시장에 제2외국어까지 가세하여 교육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인터넷에서 제2외국어에 의한 정보검색과 정보 송출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제2외국어의 정보 송발신에 대한 제약이 상당부분 자유로워진 것도 코스웨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웹 기반교육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점차 축소화되고 감소하는 제2외국어 학습자의 대상을 학교단위에서 평생교육단위로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등장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검색엔진에서 일본어를 검색하면 약

380개의 사이트를 찾아준다. 중국어 250여 개, 불어 130여 개, 독일어와 스페인어 50여 개, 아랍어 10여 개 사이트가 검색엔진에 의해 검색된다. 일본의 검색엔진에서 찾으면 중국어 280여 개, 불어 130여 개, 독일어 130여 개, 스페인어 100여 개의 사이트를 검색해 준다. 미국의 검색엔진에서는 일본어는 43개의 카테고리 2736개의 사이트가 검색된다. 중국어는 46개의 카테고리 2453개의 사이트, 독일어는 161개의 카테고리 3991개의 사이트, 스페인어는 21개의 카테고리 2365개의 사이트를 각각 검색해준다.

물론 여기에서 검색된 사이트가 모두 웹기반 외국어학습을 지원하는 사이트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사이트들이 제각기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실학습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과 웹기반 외국어 교육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느 한가지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양쪽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대화시킨다는 퍼지티브한 시각일 것이다.

그리고, 웹기반 교육은 이 같은 제2외국어 학습의 새로운 장으로 발전되고 학교라고 하는 전통적 카테고리를 벗어나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 안용주(2001) 「WBI日本語學習の方法と効果に關する研究」 동덕여대박사논문
- 안용주(미발간) 『웹기반 일본어 학습의 방법과 효과』 보고서
- 안용주(2001) 「디지털 세대의 일본인의 언어유희」 제3회 동양어문학부 학술발표회,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안용주(2001) 「웹 기반의 제2외국어 학습에 대해」 경기도 제2외국어 교사 연수회 강연자료, 수원대학교

- 배두본(2000) 『외국어교육과정론』 한국문화사
- 이덕봉(1998) 『일본어 교육의 이론과 방법』 시사일본어사
- 宮崎里司, JV 네우스トブニー(1999) 『日本語教育と日本語学習』 くろしお出版
- 김한익(1998)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환경의 개선방안』 집문당
- 최동근 외(1998) 『교육방법의 공학적 접근』 교육과학사
- 박숙희 외(1998)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 이귀윤 譯(1984) 『교육과정연구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정친기오 외(1997)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특론』 교육과학사
- 백영균/설양환(1997.) 『인터넷과 교육』 양서원
- Rod Eliss, 김윤경 譯(1998) 『외국어습득론』 한국문화사
- 박이도(1996) 『세계화 시대의 모국어습득과 외국어학습』 한국문화사